

# 박주선 “조직적 개입땀 당 해체” 김태일 “안철수 책임론 당연”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

## 국민의당 '문준용 의혹 조작' 파문 확산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 조작'이라는 대형 폭탄이 터진 국민의당은 연일 뒤숭숭한 분위기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 해체, 제2당당 등도 불사해야 한다는 '배수진' 대응책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단 법원의 영장 발부와 당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이뤄진 이후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조속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당 내외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배수진 타개론 부상=이날 당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배수진을 치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28일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에 대한 꼬리 자르기 의혹에 대해 "만일 이 범죄 행위를 당내에서 조직적으로 패를 하려고 했다면 이 당이 존재해선 안 된다"며 "내가 직접 나서 해체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이번 조작 사건이 당 차원이 아닌 개인적 일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지도부 차원의 조직이나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면 당을 해체하겠다는 점을 공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당 해체 배수진 타개책 부상

### 조사단장 “안 반드시 면담”

### 특검론 몰타기 역풍에 잠잠

모든 것을 걸고 나서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당의 결집을 이뤄 8월 전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총선 리베이트 파동 때처럼 수동적으로 나설 경우, 당이 재기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성급하게 나서기보다는 법원의 영장 발부와 당 진상조사단의 결과 등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커지는 안철수 책임론=이번 사태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가 조속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안 전 대표가 빨리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유미라는 당사자와 이준

서 전 최고위원이 안 전 대표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관계 때문이 아니라 후보가 최종적 책임을 지는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나"며 안 전 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진상조사단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안철수 전 대표를 반드시 면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이 발표 전 당시 총괄 본부장인 장병완 의원이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 후보였던 안 전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도 조사를 해야 한다"며 광범위한 조사를 예고했다.

안 전 대표는 사건이 불거진 후 사흘째 자택에 집거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당초 안 전 대표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했던 지난 26일을 전후로 입장 표명 방안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국민인 사과나 책임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검을 통해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도 함께 조사하자'는 주장도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 논의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유미 씨가 조작한 SNS 대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상곤 “수능 절대평가 필요...2021년 도입은 더 논의”

###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해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다만, 2021학년도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므로,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7월께 대

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21학년도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확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김 후보자의 답변은 시행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도 "자사고와 외고가 임시 위주의 교육과 고교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온 만큼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붙였다.

김 후보자는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체제 개편, 수능 개편 등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며, 사회 일각의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교조도 교육정책 파트너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뇌인줄 알았는데 복숭아씨였네



(189) 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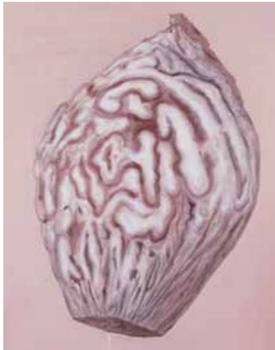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열명 가운데 한명이 치매환자라고 한다. 새 정부가 질병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린 치매를 국가가 돌보겠다는 의지로 '치매국가책임제'를 구축하겠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요즘 주변에서 뇌와 관련한 서적이니 융합 뇌 과학 등에 관심이 뜨겁다. 어른 주먹 2개 정도 크기로 불과 1.4kg인 뇌, 우리 몸 속의 작지만 큰 우주인 뇌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관장하기에 더 달라고 노력하는 것 같다.

서양화가 김지원교수(1961~), 한국 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의 작품 '정물화'(1999년 작)를 처음 마주했을 때

어쩌면 '인간의 뇌'를 그린 그림일거라 확신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표면적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진화했다는 뇌 주름을 회화적으로 강렬하게 묘사한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시각 이미지는 때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보여지는 것 같다. 반전인 것은, 화가의 작품은 달콤한 과육을 다 먹고 버린 복숭아씨를 그린 것이다.

김지원교수는 "누군가는 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맨드라미 말린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교련복 무늬 같기도 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림 안에 '언제'라는 글씨가 있는 것 같기도 한 작품"이라고 말한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물건들에 시선이 가고 그랬던 시기에 작은 물건들을 극단적으로 클로즈업 하여 놀랄 만큼 생생한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20호 크기로 확대한 복숭아씨는 예상하지 못할 낯선 존재감으로 사뭇 초현실적이다.

김지원교수는 십 수 년 전부터 여름철 뜨거운 태양 아래 생명력의 상징인



김지원 작 '정물화'

맨드라미를 그려 '맨드라미 작가'라는 강한 인상을 주기도 했고, 얼마 전부터는 거센 바람과 파도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바다를 화면 가득 담아내고 있어 '바다의 작가'라고도 불린다. 대상을 회화적으로 재현하기보다 회화의 본질을 사유하고 탐색해가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어서인지 화가의 작품 앞에서는 한참동안 생각에 잠기게 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 한미동맹 재확인하고 북핵 폐기 방안 절충점 찾기

### 文대통령 방미...사드 배치·한미FTA 논의도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방미 길에 오르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목표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한반도 최대 이슈인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의 도출하고 양국 간 갈등의 불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도 양 정상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되는

사안이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의 최우선 목표는 양국 모두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토대인 동시에 미국도 동아시아 전략 유지 차원에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핵심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북핵문제다. 두 정상은 북핵 완전 폐기라는 최종 목표와 이를 위한 제재와 압박은 물론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큰 틀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북핵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방법론의 선후 관계와 강조 포인트에서 미

묘한 간극을 보인다.

사드는 북핵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 중 하나인 만큼 정식 의제화 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문제가 한미동맹은 물론 중국까지 결부된 외교·경제 문제로 비화한 만큼 양 정상 의견 교환 가능성은 작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미FTA 재협상 기조를 분명히 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미국 무역적자의 한 원인으로 한미FTA를 지목한 데다 보호무역 기조를 전명한 상황도 문 대통령에게는 고민될 수밖에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분양 전환 아파트 24/35 PY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